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1월 18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1:3-11

새 해를 맞아 우리는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00% 라는 단어입니다.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지속할 시스템 100% 라는 말은 누구나 인정할 내용입니다. 성공을 위하여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당연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공부해야 하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생각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는 길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누구나 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이것이 현장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현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디자인입니다. 이런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중요한 만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고 결국은 정복하는 기도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 기도 300%라는 단어입니다. 올 해는 이 축복으로 영원한 우리의 언약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00% 체질이 되면 깊고 세밀한 성령 인도와 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1.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 어려운 중에도 복음 운동을 지속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멈추지 말라. 아마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가장 해 주고 싶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2)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2차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고 차갑고 습기 찬 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옥중 서신을 기록하였고 그 때 디모데 후서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후에 목이 잘려 순교하였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 세계를 표현한 또 하나의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거기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고 사실은 세상 최고의 권세가 그 고난 안에 다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3)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거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문제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일어나는 일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옆에 두고 언약을 잡고 문제에 도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4) 대부분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건이 완전히 안 되는 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던 중에 광야에서 수 많은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5)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언약으로 잡고 그것을 방해하는 문제 해결에 도전을 해야 정상적인 방향인데 문제만 오면 “돌아가자”를 연발했습니다.
6) 그런데 바울은 오늘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을 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7) 마24:14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불신자 포함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 기준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향하여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려 합니다. 응답 받으려는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8) 차원이 다릅니다. 혹 종이 한 장 차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음의 차이 하나가 모든 곳에 차이가 나게 합니다. 생각이 다르게 하고, 말이 달라지고, 사건과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고 모든 가치관이 다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이 세상 대부분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일 것입니다.

2. 디모데

1)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누구인가, 어떤 영적인 사람이었던가를 몇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청결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 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양심은 복음의 그릇입니다. 들어간 복음은 그릇대로 바뀝니다.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지만 그 복음이 바깥으로 나올 때 그의 내면적 그릇에 영향을 받은 상태로 나옵니다. 디모데는 청결한 복음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2) 두 번째는 5절에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부분도 청결한 양심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속이려고 해도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3) 우리는 이 두 단어에 대하여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은 누구나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4) 우리는 영원히 언약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었고 거기 외에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 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혹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오직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5) 그러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며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하여 우리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6)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300%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찾아가라 그러면 답에 도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승리합니다. 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은 무너지고 모든 저주는 떠나갑니다.

7)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최고의 고난을 받았으나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새 해를 맞이 하여 다시 한 번 새 출발하길 바랍니다. 마른 땅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